

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...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

- 선박 작업자 해상 추락을 가정한 긴급구조 대응 및 응급처치지원 등 점검
- 7월 29일(수), 부산항 오륙도 인근 해상, 해수부·해경·부산대병원 등 합동 참여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오는 7월 29일(수) 부산항 오륙도 인근 해에서 바다내비 설치 선박의 해양사고를 가정하여 '선박사고 긴급구조 비상대응 합동훈련'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훈련은 해양수산부, 부산지방해양수산청, 부산해양경찰서, 부산대병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. 실제 선박운항 중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바다내비 선박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긴급구조신호(SOS)를 전파하면 구조기관의 현장 긴급출동,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해상원격의료지원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.

'바다내비'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·좌초 위험경보, 실시간 해상교통 정보 및 기상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바다내비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상무선통신망(LTE-M)을 활용하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"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안선박과 해상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" 라고 밝혔다.

*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2일(수) 세종에 위치한 바다내비 중앙센터를 부산시 동구로 이전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	책임자	과 장	한승현 (051-773-6141)
		담당자	사무관	배철수 (051-773-6142)

참고

훈련 위치 및 참여선박

< 합동훈련 위치(부산항 오륙도 인근) >



(부산지방해양수산청) 해미르호 (44톤, 순찰선)



(부산해경) P-106정 (95톤, 경비정)

